

1월 1주차

2019.12.30 ~ 01.03

# 지정학적 긴장 고조, 유가(브렌트유) 3.5개월 남짓 최고

美 이란 군부 실세 제거 ... 양국 군사적 충돌 가능성 최고조



2020-01-06

최은지 책임연구원

문의: 02-565-3337

[amiableej@koreapds.com](mailto:amiableej@koreapds.com)

## SUMMARY

현지시간 금요일(1/3)기준,

**브렌트유 3월물 가격 = 68.6달러/배럴**

: 전주비 +2.59%, 전월비 +8.89%

→ 2019/09/16(현지시간), 69.02달러/배럴 이후 3.5개월 남짓 최고치

상승 요인



美中 1단계 합의문 서명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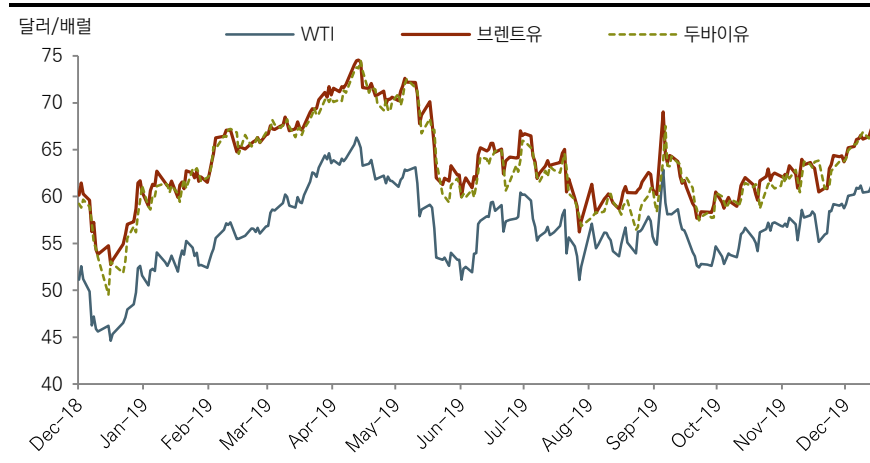


美이란 군사적 충돌



美 원유 재고 급감

## 최근 1년간 유종별 가격 추이



자료: 코리아P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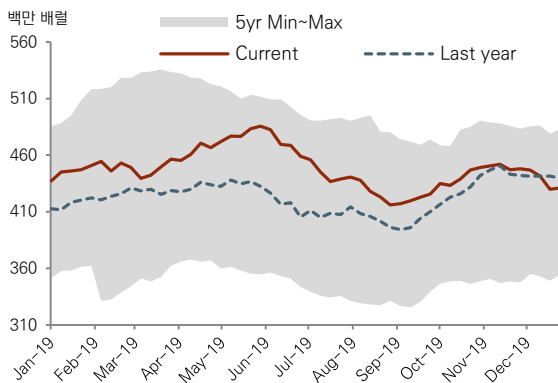
싱가포르(FOB) 두바이유 현물 가격 = 65.69달러/배럴 : 전주비 -0.13%, 전월비 +7.49%

CME WTI 2월물 가격 = 63.05달러/배럴 : 전주비 +2.15% 상승, 전월비 +7.91%

→ 2019/05/21(현지시간), 배럴당 63.13달러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

- 전주 상승에 대한 부담과 연말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주 초반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, 배럴당 66달러 선으로 후퇴함.
- 하지만 새해 접어들면서 미-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문 서명 기대감에 따른 낙관적 수요 회복 전망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주 후반 유가는 상승으로 돌아섬. 이로써 유가(브렌트유)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
- 중국 국무원 류허 부총리의 1월 4일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, 방문 기간 중 양국간 무역협약안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임. 또한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미 도널드 트럼프도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포괄적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임을 밝힘. 한편, 양국 무역 협정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법률 검토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.
- 미-중 무역협상 이후 수요 회복 기대 속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-이란 군사적 긴장은 고조됨. 2019년 마지막 날,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그 지지자들이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함. 이에 트럼프는 이란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고, 급기야 현지 시간 3일(금) 미군의 이라크 공습으로 이란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등 군부 실세 2명이 사망함. 이에 양국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됨. 그 결과, 이날 장중 한 때 유가는 4.4% 급등하기도 함.
- 더욱이 새해 들어 미국석유협회(API) 및 미 에너지정보청(EIA)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의 2~3배를 넘어서는 큰 폭의 감소로 나타남도 주중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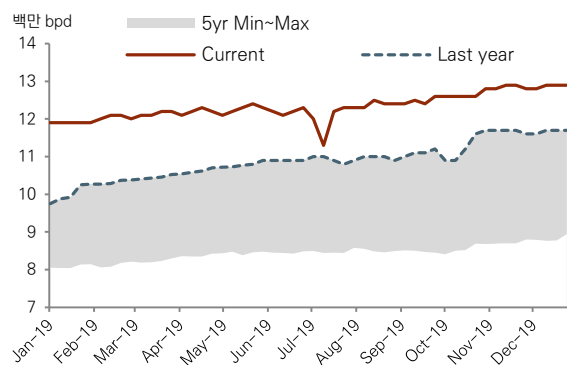
美 원유 재고량



전주비: -2.6%, 전년비: -2.6%

3주 연속 감소, 10/4주간 이후 최저

美 원유 생산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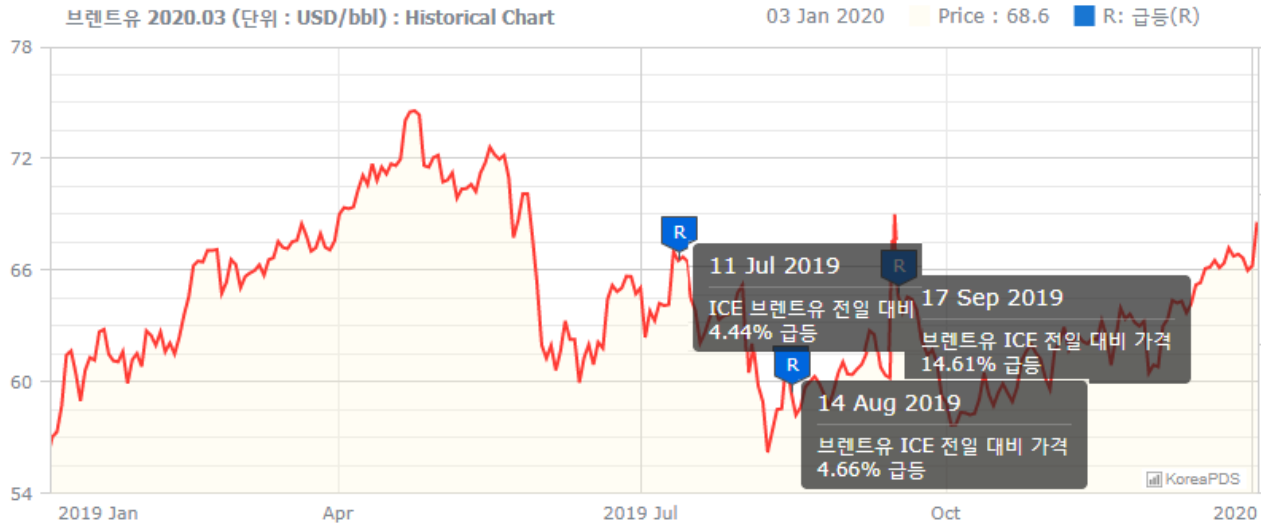


전주 수준 유지, 전년비: +10.3%

3주 연속 1,290만 bpd, 역대 최대 생산 실적 기록

자료: EIA, 코리아PDS

최근 1년 ICE 브렌트유 가격 급등 시기



<b>R1) 2019-07-11 +4.44%</b> 미국 원유 공급 우려 美 주간 원유 재고 급감 (950만 배럴 감소; 예상치 3배 이상) → 4주 연속 감소  + 멕시코만 허리케인 상륙 예보	<b>R2) 2019-09-17 +4.66%</b> 중국 수요 확대 기대 美, 중국산 수입 관세 부과 연기 → 중국 수요 개선 및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향상  + 美-中 무역협상 재개 + 사우디아라비아 감산	<b>R3) 2019-09-17 +14.61%</b> 중동 지정학적 우려 후티 반군, 드론 이용해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 (570만 bpd 원유·가스 생산설비 피해; 美, 이란 배후 의심)  + 이란, 호르무즈 해협에서 UAE 밀수 선박 체포
--	---	---

자료: 코리아PDS

[ 주요 뉴스 ] 이란·이라크 군 최고사령관 사망, 중동 긴장 고조... 유가 장중 4% 급등

현지시간 3일(금)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공격으로 이란과 이라크의 군 최고사령관이 사망하면서,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. 이에 장중 국제유가는 전일 증가 대비 4%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 포착됨. 전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군 거점 표적 2곳을 공격함. 미군 습격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카심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과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-헤즈볼라(KH) 지도자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가 사망함.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"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사령관을 살해했다"고 발표함. 이에 양국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져 유가 상승이 이어짐.

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 유가의 단기 상승이 초래될 수 있음.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당시 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빠르게 유가는 안정됨. 한편 최근 미 원유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, 미국 원유 시추공수 감소에도 불구하고, 미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을 중심으로 유가 강세가 이어지는 경우, 미국은 증산을 통해 유가 안정화를 피할 여지가 충분한 실정임.

작성 : 코리아PDS 최은지 (amiableej@koreapds.com) 책임연구원  
www.koreapds.com |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